

#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박 대 훈 · 전남 완도군 노화초등학교 5-1

**자**기 가족 중  
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친  
구들은 자기의 어  
머니를 꼽는다.  
그렇지만 나는 서  
슴지 않고 할아버  
지를 꼽는다.

우리 할아버지

께서는, “우리 대훈이는 우리가  
문을 이어갈 장손이다.” 하시며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은 모두 나를 생각하신  
다. 우리 누나는 그런 할아버지  
가 불만이지만 나는 우쭐거리며  
신이 난다. 무조건 나를 사랑하  
시는 할아버지가 나도 무작정 좋  
다.

그런데 한 가지 할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작년 봄 체육시간에,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피우는  
사람도 해롭지만 옆에서 담배연  
기를 마시는 것은 더욱 해롭습니  
다.” 하시던 양호선생님의 고운  
목소리가 생각날 때마다,

“할아버지,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할  
아버지보다 옆에서 담배연기를  
마시는 제가 더욱 해롭습니다.  
할아버지, 금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려도  
“요녀석아, 쓸데없는 걱정을 말  
아라. 이때까지 담배를 피웠어도  
나는 한번도 아파 보지 않았다.”  
하시며 금연을 하시지 않는 할아  
버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금연을  
못하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와 방을 따로 쓸 생각도  
했으나 할아버지와 떨어진 생활  
은 싫어서 걱정만 하고 지냈는데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할아버지께서 지난 토요일 저  
녁식사 시간에 금연을 선언하신  
것이다. 한달 동안 감기를 앓고  
있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던  
할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와 담배  
를 막 피우시기 시작하시자, 곁  
에 누워있던 내가 실재없는 기침  
을 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다.

할아버지께  
죄송해진 내가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자,  
나를 꼭 끌어  
안고 “대훈아,  
이 할아버지 잘  
못이다. 당장  
담배를 끊을  
테니 가만히

누워 있거라. 이까짓 담배 끊는  
것이 대훈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남은  
담배갑을 휴지통에 넣으셨다.

금연 선언을 하신 우리 할아  
버지를 우리 식구 모두 박수로  
환영했다.

할아버지께 불만이 많던 누나  
도, “할아버지께서 대훈이에게  
배푸신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이  
제 담배연기의 공해에서 해방되  
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  
습니다. 대훈이를 더욱 사랑해  
주시시오.” 하며 기뻐하자 “우  
리 등휘는 큰손녀인데 내가 왜  
예뻐하지 않겠느냐? 우리 등휘  
많이 컸구나!” 하시는 할아버지  
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  
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하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께  
서 배푸신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이다.

## 금연, 그 아름다운 약속

최 연 정 · 서울 흥대부속 초등학교 3-1

**지**난 연휴 때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두었기에 들뜬 마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포공항은 많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모두들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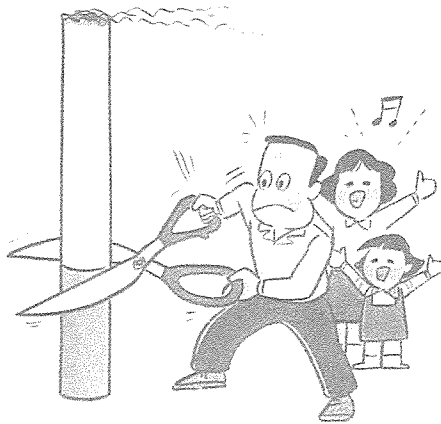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모두들 출구로 나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의 손을 잡고 빨리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휴게실과 화장실로 급히 뛰어 다녔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행기를 놓치면 어쩌나' 걱정하며 힘없이 돌아설 때, 저쪽 유리창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김포공항 휴게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유리 칸막이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아빠! 빨리 오세요. 빨리요."

급한 마음에 칸막이를 두드려서 아버지를 모시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우울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우리 아버지가 토끼장처럼 조그만 곳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



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오래 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었고, 꼭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좁은 '흡연실'을 이용하고 계셨던 것이다.

야자수가 가득한 제주도, 맑고 신선한 공기,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제주도에 도착했지만 내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흡연실'에서의 초췌한 아버지 모습이 자꾸 눈 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숙소에 짐을 풀고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로 나갔다. 제주도는

정말 공기가 깨끗해서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모두들 모래 장난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을 때 나는 저만큼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아버지를 또 보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께 다가가서 말했다.

"아빠! 아빠는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럼,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도 왔잖니"

"그런데 왜 아빠는 담배를 피우세요?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저도 다 안다구요. 공항 흡연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빠가 창피했어요."

나는 갑자기 엉엉 울고 말았다. 당황해 하시면서 급히 담배를 끄신 아버지께서는 울고 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 많이 컸구나. 이렇게 아빠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을 할 줄도 알고, 그래 그래, 약속할게. 아빠가 담배를 꼭 끊겠다고 말이다."

아버지와 손가락을 걸고 "금연" 약속을 하면서 바라 본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푸르고 아름다웠다.